

김산호 회화극본 부처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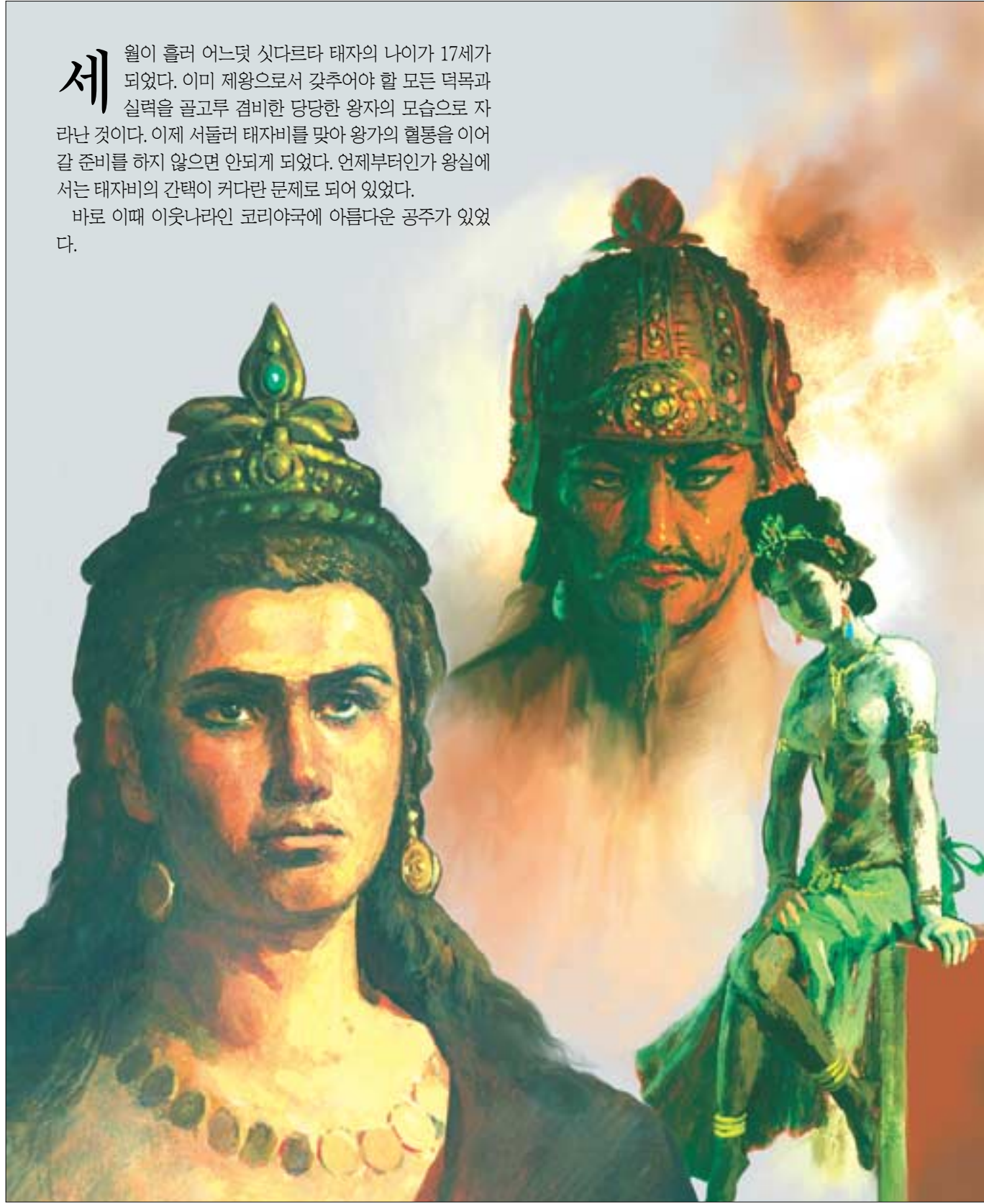
The story of Holy Buddha

부처님

제3화 태자비 ①



세월이 흘러 어느덧 싯다르타 태자의 나이가 17세가 되었다. 이미 제왕으로서 갖추어야 할 모든 덕목과 실력을 골고루 겸비한 당당한 왕자의 모습으로 자라난 것이다. 이제 서둘러 태자비를 맞아 왕가의 혈통을 이어갈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언제부터인가 왕실에서는 태자비의 간택이 커다란 문제로 되어 있었다. 바로 이때 이웃나라인 코리아국에 아름다운 공주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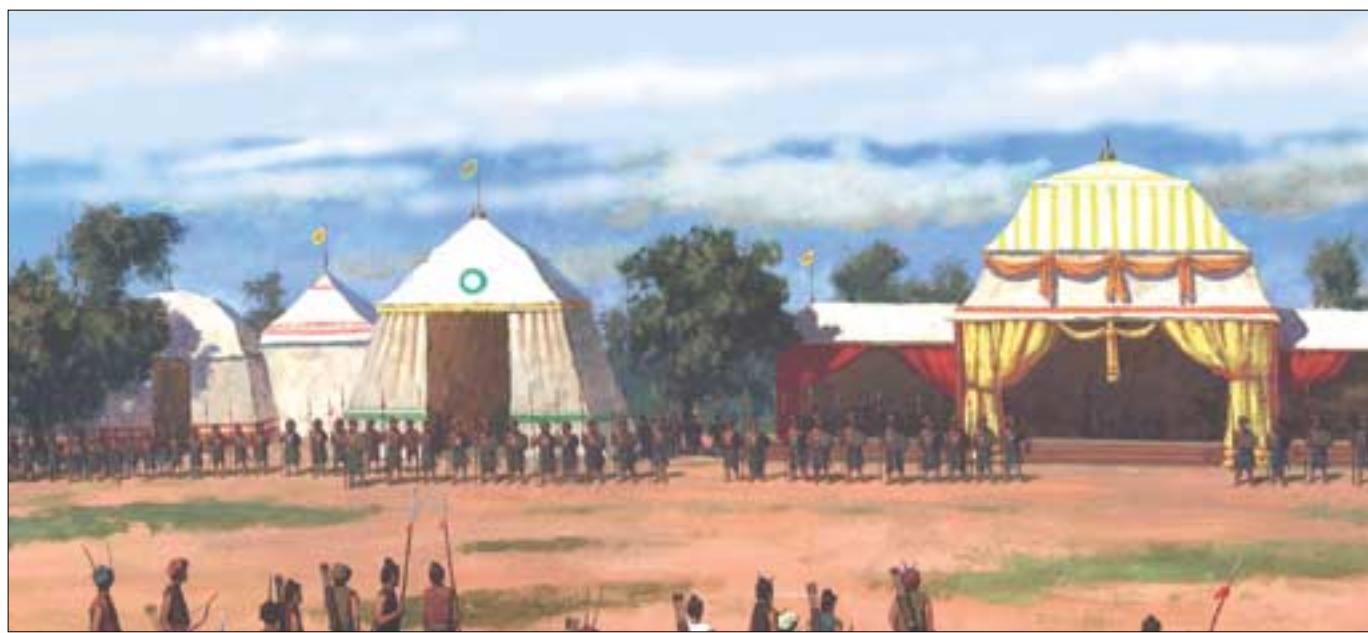


코리아(Koliva)국이나 데바다하(Devadaha)는 다같이 립비나 동산 사이에 두고 이웃하고 있으면서, 카필라바스투를 상국으로 모시고 있는 같은 샤카(Sakya)족들로서, 사돈간의 친척관계이니 공주를 시집보내라는 숫도나 라자의 요청을 거절할 수 있는 입장에 있지 않았다. 그러나 아름다운 야소다라(耶輸陀羅)공주의 소문이 너무나 크게 퍼져 카필라바스투를 지배하고 있던 마가다(Magadha)국을 비롯하여 파바(Pava)등 무려 8개국으로부터 경쟁적으로 청혼을 받게되어 아버지인 코리아국의 왕 숲파뽀다 2세의 입장이 대단히 어려운 처지에 빠지고 말았다. 이 당시의 청혼이란 반드시 결혼을 의미하기 보다는 결혼을 통하여 양국간의 우호를 다지는 국제조약의 뜻도 내포하고 있어서 소국인 코리아로서는 자칫 잘못 처신하면 국가 존폐의 위기를 자초할 수도 있었던 것이다. 깊은 고민속에 방황하고 있던 아버지 숲파뽀다에게 야소다라 공주는 뜻밖의 제안을 했다.

“아버님, 우리 코리아는 소국으로서 어느 한나라의 비위를 건드려도 그나라의 공격을 받고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따라서 저의 혼사문제를 아버지 혼자서 결정하시면, 뜻을 이루지 못한 나라는 모욕을 당했다고 우리나라를 공격해 오겠지요. 그러나 모두가 공평하게 신랑감 후보들을 한자리에 불러 무술대회를 열어 최종 우승자에게 제가 시집을 간다면 뜻을 이루지 못한 나라도 그 책임을 아버님께 돌릴 수 없고 무술대회에 출전했던 제 나라의 왕자를 닦할 수밖에 없겠지요.”
다른 방법이 없던 숲파뽀다 라자는 영특한 야소다라 공주의 제안대로 따르기로 하고 각 나라에 통보하였다. 사실 불전에 보이는 이 대목은 인도의 설화속에 널리 알려져 있는 ‘샤야바라’라는 것으로 사위고르기 대회의 하나인 것이다. 드디어 무술대회를 여는 날이 다가오자 야소다라 공주를 원하는 여러 나라의 왕자들은 공주를 데려가기 위하여 속속 코리아의 도성으로 몰려 들었다.



싯다르타 태자를 위하여 청혼을 보냈던 카필라바스투에서도 이제는 어쩔 수 없이 태자를 파견하여 왕자들의 무술대회의 우승을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 무술대회에는 싯다르타 태자의 종형제인 데바뽀다도 함께 출전 하였다.



대부분의 왕자들은 힘과 힘을 겨루는 이런 시합을 지극히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것은 수드라 계급이나 하는 경기로서, 적어도 왕자인 크샤트리아들로서는 천한 운동이라고 생각하여 연습을 게을리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싯다르타 태자는 그동안 엄격한 체력단련을 통하여 제왕이 될 꿈에 젖어 있었으므로 이 힘든 시합을 어렵지 않게 치르면서 첫날의 우승자가 될 수 있었다. 두번째 날은 활쏘기 시합이었다. 활쏘기는 귀족적인 무술로서 대부분 궁중에서 수련을 해온 왕자들은 서로가 자신의 우승을 장담하였다. “오늘이야말로 나의 진짜 실력

을 과시하리라” 모든 왕자들은 자신감에 차 의기양양하게 대회에 나섰다. 그런데 첫 관문을 모두 쉽게 통과하자 과녁이 차츰 어렵게 변하더니 마침내 500보의 먼거리에서 큰 북을 두려 일곱 개나 뚫어 보라 하였다. 대부분의 왕자들이 한 두 개씩을 뚫으며 과녁을 명중시켰지만, 오로지 싯다르타 태자만이 일곱 개의 북을 모조리 관통시켰을 뿐 아니라 화살이 더 멀리 날아가 보는 이들의 탄성을 자아내게 하였다. 이리하여 둘째날의 무술대회도 싯다르타의 압승으로 끝나게 되었다.



막강한 국력을 앞세워 소국 코리아를 쉽게 굴복시키려 했던 여러 나라들은 야소다라 공주의 지혜에 걸려 이제는 물러설 수도 없게 되어 버렸다. 이미 왕자들이 자기 나라를 대표하여 출전하는 모양새가 되었고, 이렇게 된 이상 시합에서 꼭 우승을 하여 제나라의 체면을 세우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드디어 시합의 날이 다가왔다. 아름다운 야소다라 공주는 중앙에 높이 앉아 젊고 활기에 넘치는 왕자들의 귀중한 전리품으로 그 향기를 발산하고 있었고, 그녀를 바라본 왕자들은 기필코 우승하여 저 아름다운 공주를 데려가겠다는 결의에 차 있었다. 왕자들의 무술 시합은 첫날부터 힘겨루기로 시작하며 그 열기를 뽐기 시작하였다. 더운 나라인 인도 특유의 이 시합은 오늘날의 레슬링 시합과 비슷한 것인데, 서로 힘으로 상대방을 제압하여 항복을 받아 그 승자가 결정되는 형식이였다.

